

(III)

일련정종(日蓮正宗) 종문의 오류

일련정종(日蓮正宗)

종문의 오류

서문

여기서는 제 67대 법주 아베 닛켄이 절대 권위로 지배해 온 현재의 일련정종 종문의 사의(邪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한다. 닛켄은 자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도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창가학회를 저버리고 이케다 SGI회장을 비난하는 행동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

종문사건의 경과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과 그의 제자 도다 조세이는 일련정종의 회원으로부터 1928년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소개받았다.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민중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생각한 두 사람은 대성인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교학에 전념, 불법을 흥통해 나아갔다.

1940년 초, 일본 군부정부는 종교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신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였다. 마키구치 회장은 신찰을 거부하였으나 일련정종 종문은 국가신도에 복종하며 군부정부의 정책과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문은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이사장 그리고 창가교육학회(창가학회의 전신)의 회원들에게까지도 신찰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승려들이 권력에 타협하는 동안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이사장은 니치렌 대성인의 의도와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련정종 법주에 대항하고 신찰을 거부하였으며 대성인의 입장에 서서 올바른 불법을 땅에 떨어트리는 군부정부에 대항했던 것이다.

결국, 군부정부에 반대한 창가학회의 두 분은 투옥되게 된다. 마키구치 회장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며 도다 이사장은 옥중오달을 통해 스승의 뜻을 이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흥교할 것을 결의하며, 곧 창가학회를 재건하게 된다.

국가신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창가학회는 전쟁전부터 일련 정종의 외호(外護)에 노력해왔다. 종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종문을 도와 350채 이상되는 사원을 건립해 종문에 공양해왔다.

게다가 피폐된 일련 정종 정본당, 대석사를 소생시켰으나, 결국 닛켄은 수천 년동안 계속될 니치렌 불법의 정수이며 수백만명의 신도들의 정성어린 공양으로 세워진 정본당을 부숴버렸다.

창가학회는 회원들에게 대석사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절까지 성원해줄 것을 권장했다.

그 당시, 창가학회와 일련정종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창가학회의 근본적인 목표는 니치렌 대성인의 광포의 대원에 있었으며 일련정종은 승려들의 화의(化儀 종교적 의식)와 권위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학회는 승속화합을 바라며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극복해 왔다.

1990년 법주 닛켄은 신도명시를 구체화하며 창가학회와의 단절, 회원신도들과 이케다 SGI회장의 연대 단절, 그리고 신도들을 중문의 권위에 직속으로 종속시키기 위해 C 작전(C는 영어의 'cut <단절>'을 의미)이라는 음모를 기획 실행에 옮겼다. 이것은 닛켄과 승려들이 신도들의 모든 공양을 단독으로 받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같은해 12월, 중문은 종규(宗規)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케다 명예회장을 비롯해 학회간부를 법화강 총강두 대강두의 지위에서 해고시켰다. 중문은 창가학회에 이 결정을 통보하기 전에 타블로이드 매체를 통해 먼저 알렸는데 이것은 학회 회원들에게 충격과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였다.

학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했으나 중문은 대화를 거부했으며 학회원에 대해 어본존 수여를 정지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학회와 학회간부를 파문시켰는데 이것은 100만명에 달하는 신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불교사에 있어서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문이 창가학회의 회원에게 어본존 수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1993년, 학회는 18세기의 개혁가이며 일련정종의 제 26대 법주인 니치칸 상인 서사 어본존을 모든 회원들이 수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창가학회와 SGI는 니치렌 대성인 직결의 교단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일련정종의 파문 이후, 창가학회와 SGI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으나 중문은 반대로 쇠퇴해 가고 있다.

대성인은 “현증”(어서 1468 쪽)을 강조하셨는데 어느 쪽이 대성인의 가르침과 교시에 따라 불법을 실천하고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005년 12월, 닛켄은 법주의 자리에서 퇴좌하였으나 중문은 이미 대성인의 철학에서부터 너무나 벗어나 있었다. 새로운 법주로 니치노가 임명되었으나 닛켄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대성인의 가르침의 오역은 계속 이어졌다. 오랫동안 일련정종에 악영향을 미친 닛켄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주조차도 닛켄의 오류와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일련정종 중문의 주요 오류점

일련정종이 닛켄의 영향 아래 6가지면에서 특히 니치렌 대성인 가르침의 실천에 심각한 오류를 행하고 있다.

1. 광포파괴의 책모

1991년 11월, 중문은 학회에 ‘파문통고서’를 보내왔다. 거기에는 어서 한구절도 인용되지 않았고 학회를 파문하는 교의상의 근거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단순히 학회가 중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을 반복할 뿐이었다. 어의구전에는 ‘대원이라는 것은 즉 법화경홍통이다’(736 쪽), 또한 ‘광선유포의 대원’(어서 1337쪽)이라는 어성훈처럼 광선유포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유명인 것이다. 창가학회야 말로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불법을 흥통하여 실천해 왔다. 창가학회의 파괴를 기하는 ‘파문’이야 말로 광선유포 파괴의 대방법이며 일체중생의 구제와 절대 행복을 지향하는 니치렌대성인의 뜻에 어긋나는 대죄인 것이다.

2. 법주 절대 신앙의 사의(邪義)

닛켄과 그 추종자들은 법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주를 따라야 한다는 법주절대론에 근거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승려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교의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나 닛코상인의 어교사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으며 대성인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일탈한 사의(邪義)인 것이다. 닛코상인은 닛코유계치문에서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어서 1618쪽)이라고 쓰셨다. 이 간언은 법주절대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릇된 혈맥관

닛켄중은 전대(前代) 법주에게서 상승을 받는 것만으로 부처의 내증을 깨달아 법체가 다음 법주에게 전해진다는 신비적인 혈맥관을 주장하고 있다. 종문은 이 혈맥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은 화의(化儀종교의식)의 계승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신비적이고 절대적인 혈맥관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의에 지나지 않는다. 대성인은 <생사일대사혈맥초>에서 “일본국의 일체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을 잇게 해 주려고”(어서 1337쪽)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혈맥은 만인에게 개방된 것으로, 일부 사람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동초에서 “신심의 혈맥없이 법화경을 소지하는 것도 무익하느라(어서 1338 쪽)”의 어성훈처럼 혈맥의 본질은 신심에 있으며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믿고 실천하는 데에 신심이 있는 것이다.

4. 화의(化儀)의 악용

종문은 고인에게 법명(계명)을 지어주거나 위폐를 모시는 장의(葬儀)를 비롯한 화의를 행한다. 일련정중에서는 이런 화의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공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수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승려에 의한 이러한 화의는 대성인 자신이 전혀 가르치신 적이 없으며 나중에 승려가 해야 할 의미로 추가된 것이다. 종문은 승려가 행하는 장의가 성불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성훈에서는 일체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과거의 자부(慈父)의 존령(尊靈)은 존생(存生)에 남묘호렌게교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불의 사람이니라.”(어서 1423쪽)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성불은 생전의 신심, 실천에 따른다고 강조하셨다. 어디에도 사후에 승려의 기원과 의식에 따라 성불된다는 가르침은 없는 것이다. 대성인의 어교시를 무시하고 승려에 의한 화의가 성불하는데 불가결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성인의 불법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5. 승속(僧俗) 차별

닛켄중은 승려가 위 신도가 아래라고 주장한다. 가장 경험이 없는 수습승려도 가장 경험이 풍부한 신도보다 월등하다고 한다. 또한 승려가 스승이며 신도가 제자라고 하지만 창가학회에서 말하는 사제불이와는 달리 닛켄중에서는 제자는 언제나 열등하며 ‘스승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이나 닛코상인은 그런 고정적인 관계를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대성인은 “이 세상 중에서 남녀승니를 가리지 말지어다. 법화경을 수지하신 사람은 일체중생의 주인이라고 부처는 보셨나이다”(어서 1134 쪽)라고 하셨다.

6. 부패타락의 일련정중

대성인은 승려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그러나 정직하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인 승(僧)이야말로 진실한 승이로다.”(어서 1056쪽)라고 검소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나타내셨다.

그러나 닛켄을 비롯해 닛켄중의 승려의 실태는 부패타락이 극에 달해 대성인의 어교시와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 1989년 7월 17일, 10년동안 법주의 자리에 있던 닛켄은 후쿠시마에 있는 선종(禪宗)의 절에 닛켄 집안의 묘를 세웠는데 이 묘비는 스웨덴에서 수입된 것으로써 4만불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대석사의 승려들이 유골을 담은 150-200 가마의 짚자루를 불법(不法)적으로 매장한 것에 대한 법적소송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소송에서 재판장은 종문의 매장절차의 운영이 형사상 과실이며 일본사회의 종교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닛켄뿐만 아니라 말사주직(末寺住職)은 고급온천호텔에서 호위호식하며 기생놀이를 하기도 했다. 대성인은 이러한 불법이용의 악습에 대해 ‘법사(法師)의 가족을 쓴 축생이니라.’(어서 1386쪽), 또는 ‘식법이귀(食法餓鬼)’(어서 1111쪽)라고 엄하게 파멸하신다.

또한 대성인은 ‘법화경의 작’ ‘부처의 작’이라고 철저히 가르치시고 있는데 여기서 ‘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질투, 거만, 증오로 인해 법화경의 진수를 위해 신심하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대선을 만들고, 법화경을 천만 번 읽고 서사하

며 일념삼천의 관념관법을 득도한 사람일지라도 법화경의 적을 책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이미 성불할 수 없다”(어서 1494쪽)라고 있는 것처럼 불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불법의 적을 책하는 것이 진정한 불도수행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과 괴의 대악을 방치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악행을 도와주는 대악이 되기 때문이다. 악을 부수기 위해 싸워가는 것이 자신의 성불의 경애를 열어가는 실천이 되는 것이다. ■